

불교의 목표인 깨달음-열반-해탈을 기독교를 통해서도 성취할 수 있는가?

[이학종 칼럼] '아쇼카 선언 토론회' 참석했지만...
"전법 목적이 개종시키는 것이라고 누가 말 했나?"

11-09-21 14:37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 세기 아쇼카 선언’(초안)과 관련해 9월 19일 열린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후 다시금 절감한 것은 21세기 한국불교에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의 재확인이었다.

종교평화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르침 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그나마 찾아보기 힘든 전법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려는 시도가 외려 매우 바람직한 일로 포장되는 현장을 목도한 것이다.

말과 글이란, 현란한 수사와 교묘한 화술로 그 본질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이나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거나 곰곰이 따져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그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니, 그 점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심각한 한국불교의 현실과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정부가 준 돈으로 지은 그럴듯한 건물 안에 모여 앉아서 음풍농월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착잡한 심경을 토론회 내내 맛보았다. 대중공사를 연 화쟁위원회는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여론을 수렴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저 몇몇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불교 근본주의자로 치부하고 그들 주장 중 일부를 수용, 선언문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끝내 발표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 분명해 보였다.

바뀔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자꾸 말을 보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만, 두 가지만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어차피 발표될 선언문이겠지만, 그래도 법을 훼손하는, 그리고 전도의지를 꺾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불자로서의 단심 때문이다. 또한 이런 선언이 구체화 되었을 때, 불교계에, 특히 스님들에게 다가올 부메랑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질의의 대한 답변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

“이웃종교는 ‘이웃’에 있는 나 자신의 종교이며, 내 종교를 비추고 있는 거울”
“나의 종교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듯이 상대의 종교 또한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인연의 차이일 뿐”
“불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불교는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

“진리란 특정종교나 믿음의 전유물이 아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이다”

선언문 가운데 이른바 ‘열린 진리관’에 대한 기술의 핵심적 문구들을 열거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불교와 이웃종교의 진리는 서로 같다(최소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된다. 혹시 기자가 오독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읽어보았다. 그러나 진리란 특정종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종교가 다른 이유는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이라는 대목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언문의 내용이 불교와 이웃종교의 진리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동일시)이라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선언문 작성자 중의 한 분인 조성택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불교와 타종교의 진리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에 대한 판단은 불자와 독자들의 몫이다. 기자가 오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인지. 주장이 강하면 불교근본주의자가 되는 형편이니 더 강하게 주장하기가 꺼려진다. 이런 선언이 채택될 경우 포교일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스님들이 놀랍게도 침묵하고 있는데 굳이 나뉠 것도 없다는 생각도 솔직히 뇌리 한 켠에서 밀려온다.

기자는 신도들과 늘 접하는 일선의 스님들이 조계종이 이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후에 어떻게 신도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하다.

기자는 19일 토론회장에서 조성택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이라면, 즉 불교의 진리가 기독교에도 있는 것이라면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공부해도 불교의 목표인 깨달음과 열반과 해탈이 성취될 수 있는가? 만일 성취될 수 있다면 이 선언문에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2.

“전법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실현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나의 종교를 선전하기 위해 타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지향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선언문 중 ‘전법과 전교의 원칙’에 관한 기술 부분이다. 이 주장도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있지도 않은 전제를 해놓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전법(傳法)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법)을 전하는 것이다. 전법은 부처님의 준엄한 명령이며, 중생을 향한 한없는 연민, 즉 대자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상대를 비방해서 개종시키려 하는 것이 전법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나 글을 기자는 이 선언문에서 처음 보았다. 화쟁위원회는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주장을 펼치며, 또 전법과 전교의 원칙을 정하려 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공연히 허구적 전제에 의거해 가만히 있는 불자들을 졸지에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비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지 매우 불쾌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들은 당사자가 그 법의 수승함을 알고 불자가 되거나, 또는 불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한국종교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웃종교인들이 불교를 통해 자기종교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결정할 몫이다. 조 교수의 문법을 빌리자면, 나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자는 것이 타종교를 비방하는 것과 동일시되는지 모르겠다.

두루 알다시피, 현재 한국불교의 가장 큰 병폐는 부처님의 간곡한 전도명령을 어기고 전법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 법을 전하지 않고 있으니, 전법과정에서 다른 종교를 비방해 다툼이나 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리 없다. 아직까지 불교가 전법을 하다가 말썽을 일으켰다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불교인’ 선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기자는 토론회에서 화쟁위원회에 이렇게 물었다.

“선언문에서 ‘개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실현하는데 전법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얻어지는 ‘행복과 안녕’이 다른 종교를 믿어 얻어지는 ‘행복과 안녕’과 동일한 것인가? 불교를 통해 얻어지는 행복-안녕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 얻는 행복-안녕이 같은 것임을 논설로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선언문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도 토론회장에서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힘이 없어 매일 얻어터지고 멸시를 당하는 애가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고 때리는 힘센 대장을 향해 ‘앞으로 나는 너를 때리지 않겠다, 알고 보니 너와 내가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이 21세기 아쇼카 선언문을 두고 한 말이다.

화쟁위원회는 말없는 다수의 ‘선언문 발표에 너무 국집하지 말라’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뜬금없다는 지적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언문의 취지는 살리되 지금의 문제투성이의 선언문은 폐기하고 새롭게 선언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 더 많은 학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선언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고, 정리된 내용을 여법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불자 문장가들을 모셔 아쇼카의 마애 칙령처럼 바위에 새겨 넣어 영구히 그 내용이 전해져도 좋을 완전하고 간명한 선언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화쟁위원회가 속해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현재 조계종에는 산적해 있지 않은가.

첨부: 9월 19일 아쇼카선언 토론회문

종교평화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 토론문

-이 학 종 (미디어부터 대표)

토론에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동안 망설였다. 아픈 소리를 해야 하고, 칭찬보다는 비판을 해야 하는 자리에 나선다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 그러나 불편함을 무릅쓰고 참석을 결정했다. 본디 기자는 입이 아니라 기사로 말해야 하는 것이지만 토론자 명단에 올라있는 보도가 나간 마당에 피한다는 인상을 주기는 싫었다.

또 종단 측, 비판 측으로 나뉘 패널을 구성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더더욱 토론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냈다. 이제 막 작성된 초안을 놓고 별이는 공사에 종단 측이라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종단 측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잘못된 기준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대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가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편 가르기부터 고쳐져야 한다. 웅졸하지 않은가. 더구나 이 자리가 현란한 언어의 수사와 알음알이의 동원으로 건강부회나 논리의 비약을 덮는 말잔치의 자리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 열린 진리관이란 표현에 대하여

나는 열린 진리관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당최 모르겠다. 혹여 이 표현이 삼법인 등 불교만의 독특한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불교도라면 밝혀야 할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편협한 주장으로 등치시키려는 음험한 의도가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또한 종교간 서로 잘 지내자는 선의의 취지 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담고 있는 21세기 아쇼카 선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발목잡기’로 몰아가기 위한 계산된 장치는 아닌지 의문스럽다.

‘대안 없는 비판’이기 때문에 ‘발목잡기’라고 한 화쟁위원회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비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비판, 대안이 있으면 더 좋을 비판, 대안이 필요 없는 비판이 그것이다. 나는 화쟁위원회가 발표한 종교평화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 초안의 경우, 굳이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안 없는 비판이므로 발목잡기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리에 대한 관점(견해)이라는 것이 설마 이 종교에도 있고 저 종교에도 있는 권선징악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은 아닐 줄 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을 놓고, 또 이 선언에 대한 비판을 놓고 진리관 앞에 ‘열린’이라는 낯선 형용사를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언에 동의하지 않으면 ‘닫힌’ 진리관이고 닫힌 사람이란 말인가.

특히 **불교의 진리가 이웃종교에도 있다는 내용, 표현이나 문법이 다를 뿐이라는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학종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불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 전법의 원칙에 대하여

아쇼카 대왕의 마애척령이 나왔을 때의 인도의 종교상황은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종교상황과 매우 달랐다. 과장되게 말한다면 정반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 나온 마애척령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의 종교상황에 적용할 선언을 작성한다는 아이디어는 나이브하다.

아쇼카 대왕은 불교에 귀의한 후 창칼에 의한 정복이 아닌 **담마에 의한 정복**을 강조했다. 아쇼카 대왕이 참으로 먼 곳까지 담마 사절단을 파견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전법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지 않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불교를 믿지 않는 대중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화쟁위원회의 선언은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부처님께서 내린 **전도명령에 배치**된다. 이교도의 심장부까지 들어가 목숨을 건 전도를 행한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 평생을 전법의 여정으로 보낸 부처님의 삶과 동떨어진 선언이다.

전법을 포기하는 듯한 이 선언은 전도명령에 깃든 대중을 향한 **부처님의 한량없는 연민을 간과한, 매우 자비롭지 못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상황은 오히려 부처님의 전도명령 정신을 되살린 **제 2의 전도명령이 선포되어야** 마땅하다.

3. 아쇼카의 명칭문제에 대하여.

종교평화를 불교도가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매우 부각하고 있는 이 선언에 아쇼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아쇼카 대왕의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과 담마에 의한 정복 의지를 담은 칙령을 종교평화선언으로 오독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아쇼카 대왕은 생존시절 ‘아쇼카 선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21세기 아쇼카 선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건강부회에 해당된다. 거기면 죽임을 당하는 황제의 ‘칙령’과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을 ‘선언’은 경우가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거나 생소한 사람들은 마치 아쇼카 대왕이 전법을 포기하더라도 종교평화를 중시한 선언을 했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은 정직하지도 못하다.

꼭 선언을 해야겠다면 **‘조계종 선언’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것도 폭넓은 여론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4. 종교평화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에 대하여

이 선언은 시기도 주체도 내용도, 절차도 잘못되었다.

왜 갑자기 이런 선언이 나왔는지 뜬금없다. 또 늘 이웃종교의 공세적 선교행위, 비상식적 선교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불교가 왜 앞장서 이런 선언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종교평화선언에 방점이 주어진다면 개신교계가, 아쇼카 선언에 방점이 주어진다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선언이라고** 생각된다.

내용에서의 문제라면, 우선 불교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부족한 이에 의해 작성된 선언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법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완성되지도 않은 선언문 초안을 **온갖 언론매체를 다 불러서 발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일간지와 텔레비전에서 이 선언초안을 대서특필한 것을 두고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난센스다. 도리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5. 제안

나는 이 토론회에 임하면서, 이 선언문 초안을 만든 분들의 기본적인 취지가 선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종교 간에 평화가 있다면 매우 다행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내용이나 절차, 시기, 주제 등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선한 취지만을 남겨놓고 기이 발표된 선언문 **초안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쇼카 선언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불교에 정통한 학자들이 나서 담마를 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런 정신을 온전히 표현해낼 최고의 문장가들(불교를 신봉하는 작가 등)이 초빙되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연구해서 간결하면서도 여법한 선언문 초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중도들의 의견을 수집해 첨삭하고 교정하여 최고의 종교평화선언문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나의 이런 비판적 토론이 종교평화선언문을 위해 선한 취지를 갖고 애를 쓴 분들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http://www.mediabuddha.net/bbs/board.php?bo_table=07_1&wr_id=9936